



검찰연합일보



제425호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www.unionilbo.com

대표 전화 : 1533-1545

복지위 국감서 건강보험·방역 도마

취약계층·의료 격차 우려 잇따라…감염병전문병원은 134병상으로 축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개선과 코로나19 방역 정책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수원 세모녀 사건, 보육원 등 보호시설을 떠난 자립준비청년의 잇따른 자살, 발달장애인 부모의 자녀 살해와 자살 사건 등으로 사각지대가 드러난 복지 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복지부를 상대로 최근 신한 기관인 국민건강보험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46억원 규모 대형 횡령 사건에 대해 질타가 나왔다.

국민의힘 강기유 의원은 “복지부 자체 감사에서 더 나아가 감사원 감사를 반드시 의뢰해 상응하는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한다”며 “강력한 감사로 밝본색원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해 자체 감사 이상의 감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백종현 의원은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

장성 강화 정책이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등 과다 이용을 야기해 건보 재정 부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종성 의원도 문재인케어의 부실을 지적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전 정부의 건보 정책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지금 비판하는 것은 부질없다. 공과가 있으면 정리하고 현 정부의 윤석열케어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일부 항목의 지출 급증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한정적 재원이 특정 분야로 쏠려서 필수 의료 쪽으로 가지 못한 점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지적들도 오갔다. 여당 의원들은 전 정부의 방역이 과학적이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과학방역’이야 말로 실체가 없다는 취지로 맞받았다.

방역 논란에 대해 조 장관은 “(전 정부의 방역의) 성과도 있었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먹통 논란’을 빚은 차세대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사

전·사후 대처가 미흡했다는 여야의 지적 이 쏟아졌고, 조 장관은 “책임감을 느끼며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지연된 급여 지급의 소급 적용은 당연하고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장애인·자립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수도권과 지방 의료 격차 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취약계층 가정의 ‘살해 후 자살’ 현상을 지적하며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통계 조사에 기반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살해 후 자살통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며 “살해 후 자살에 대한 심층사례분석(심리부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송원기 기자

검찰, 쌍용차 인수 시도 에디슨모터스 3명 구속영장

검찰이 쌍용자동차 인수 불발로 ‘먹튀’ 의혹이 불거진 에디슨모터스 관계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에디슨모터스 관계자 강모 씨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

린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회사의 자금조달 창구였던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주가는 쌍용차 인수 추진 소식에 급등했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EV의 대주주 투자 조합이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고 차익을 실현해 먹튀 논란이 일었다.

결국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합병은 무산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이첩했다.

검찰은 8월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 박민우 기자

Photo News



신임 법관의 선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경찰, ‘제2 n번방’ 가담 12명 거주지 등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제2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대화방 가담자 12명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대화방 접속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 대화방을 만든 주범으로 지목된 ‘엘’도 추적 중이다. ‘엘’은 2019년 ‘n

/ 조용경 기자

ESG로 대한민국을
조화롭게
좋아지게

■ 녹색 경영 ■
■ 나눔 경영 ■
■ 친환경 경영 ■

농업 발전과 탄소 줄임을 위한 연구 확장
지역사회·학생 발전 지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인증 획득



ESG로 대한민국을 조화롭게 좋아지게

농촌과 도시를 더 조화롭게
그래서 우리의 내일이 더 좋아지게

자연과 기술이 더 조화롭게
그래서 이 땅의 미래가 더 좋아지게

기업과 국민이 더 조화롭게
그래서 대한민국 모두가 더 좋아지게

NH농협이 앞장섭니다



여야, 개천절 맞아 민생 강조, “홍익인간 정신 살려야”

공세도 이어가…“당리당략 위한 국정훼방” vs “외교참사 감추기 매달려”

여야는 3일 개천절을 맞아 ‘민생 우선’을 강조했다.

여야는 또 순방 외교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 등으로 정국이 급랭한 상황에서 국정 난맥상의 책임을 놓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널리 이롭게 한다는 흥익인간의 정신은 민생을 잘 챙겨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드리라는 뜻일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흥익인간 정신을 되새기며 오직 민생을 기준으로, 국민의 삶을 행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외교·안보 등 각종 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도 부족한 시 간이지만, 야당은 여전히 당리당략을 위한 국정 훼방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한 뒤 “야당이 민생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참석자들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경제 위기로 하루 하루가 걱정스러운데, 대통령은 매일매일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개천절을 맞

아 국민을 이롭게 하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흥익인간’의 정신을 되새

겨 국민을 이롭게 하는 국정 운영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송원기 기자



지난 8월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에서 관람객이 해군의 수중무인체계를 살펴보고 있다.

군, 정찰용 무인잠수정 2030년대 전력화

국방부, 국감자료…“ADD, 핵심기술 개발 중”

군 당국이 정찰용 무인잠수정을 2030년대에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정찰용 무인잠수정이 2030년대에 전력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찰용 무인잠수정은 2019년 5월에 제327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장

정립하고 관련 기술을 병행해 개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찰용 무인잠수정 예산은 2023~2027년 중기계획에 연구개발(R&D) 예산 약 5억원이 반영됐다. 세부 예산 계획은 선행 연구를 완료한 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군은 정찰용에 이어 전투용 무인잠수정 전력화에도 나선다.

국방부는 “정찰용 무인잠수정 개발 이후 전투용 무인잠수정을 순차적으로 전력화해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준용 기자

해외주식 팔아 원화로 환전하면 양도세 인센티브 검토

단순 매도뿐 아니라 환전까지 마쳐야 세제 혜택

250만원 공제 확대·22% 세율 한시 인하안 거론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른바 ‘서학개미’의 대외금융자산을 국내로 환류시켜 수급상 외환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동시키려는 것이다.

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양도세 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1,400 원을 넘을 만큼 원화 약세가 심각한 상황

에서 민간의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해외주식 양도세제도 그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내국인이 1년간 해외 주식을 매매한 내역을 합산해 각종 비용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20%(주민세 포함 시 22%)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다. 일례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테슬라 주식을 매매하는 서학개미 A씨가 1년 동안 사고 파는

과정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총 1천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면 1천만원에서 250만 원을 제한 750만원에 22% 세율을 적용한 165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공제 금액 250만원이 서학개미들의 양도차익의 실현을 막는 허들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학개미들 사이에선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기는 경우 매도 주식 수를 줄여 올해는 250만원까지만 양도 차익이 나오도록 매도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절세를 추구하는 경우 가 많다.

이때 기본공제액을 500만원으로 올린다면 차익실현 규모를 더 늘리는 요인이 된다.

20%로 설정된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또한 서학개미들의 차익실현을 도울 방안이다.

정부는 다만 해외주식을 양도한 후 원화 환전까지 마쳐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양도세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발생하는데 주식을 매도해도 계좌에 달려 예수금으로 남아 있다면 외환시장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다.

금융시장에서는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 특히 해외주식 계좌에 차익실현 이후 예수금 형태로 남아 있는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김민경 기자

주민등록번호 유출됐을 때 온라인으로도 변경 신청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변 위협나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신청인이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24에 접속해

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이 위원회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125차례의 정례회의에서

5천342건의 신청 가운데 4천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전체 신청 사례 가운데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47.2%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 도용 14.5%, 가정폭력 11.3%, 기타 17.5% 등이었다.

/ 이승호 기자

통하는 70 도시 우리 김포

사통팔달 교통 通!

공감백배 소통 通!

오랜만에 잡는 할머니 손…내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

방문객, 음성 확인 후 마스크 쓰고 면회 가능
접종 요건 충족하면 제한없이 외출·외박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시 가족과 따뜻한 손을 맞잡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까지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은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코로나

19 여름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지난 7월 25일부터 접촉 면회가 다시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추석 연휴 요양병원 등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 가립막을 사이에 두고 대화만 나누며 그리움을 달래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접촉 면회 허용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정부는 60세 이상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올해 1월 각각 5.32%, 3.10%에서 8월 0.42%, 0.23%로 낮아졌고, 감염취약시설 접단감염 발생이 8월 4주 3천15명에서 9

월 2주 1천75명으로 감소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접촉 면회가 가능해졌지만, 방문객은 사전에 예약하고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확인해야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만

날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 방역 수칙도 지켜야 한다.

현재 필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도 자



비대면 면회 후 아쉬운 마음으로 인사하는 요양병원 입원자와 가족

유로워진다.

그러나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한 뒤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재개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 접종을 완료 했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

어야 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방역 개편 조치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김강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외국어고등학교가 최근 서울의 두 번째 공영형 사립학교로 선정돼 운영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공영형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 임원 정수의 일부를 교육청 추천 임원으로 선임하는 등 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교육청으로부터 행정·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를 말한다.

사립학교의 의사결정 체계의 공공성을 높이고 학교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총암고가 첫 모델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서울외고는 4년간 공공 과제를 수행하고 교육청에서는 연간 3억 원(환경개선비 2억5천만원, 특색사업비 5천만원)씩 총 12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신 서울시교육청 추천으로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2분의 1 미만, 감사 1명을 선임하는 등 공영형 이사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또한 인사관리 공공성 확대, 법인과 학교 재정 투명성·책무성 강화 등의 과제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 박춘배 기자

하수처리장에 축구장 짓고 “부담금 내라”…대법 “위법”

LH, 김포시 상대 행정소송…“주민친화시설, 하수도 부담금 산정서 제외”

김포시가 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 축구장 등을 만들고 그 비용을 택지 조성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가하려다 법원 제동에 걸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LH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오수가 일정량 이상 증가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공공하수도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김포시 일대에 택지조성사업을 진행한

LH는 시에 1천839억 원을 납부하기로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맺고 2009~2012년 여러 차례에 걸쳐 완납했다.

그런데 김포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추가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며 2017년 새로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고 약 138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여기에는 하수처리장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시가 마련한 축구장·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 비용이 포함됐다.

1·2·3심은 인화합물 처리시설 등에 들어간 비용을 LH에 새로 부과하는 건 타당하다고 봤다. 문제는 주민친화시설이 하수도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사업계획에 ‘하수처리장 상부 녹

/ 박소희 기자

서울 노후 공공어린이집 100곳, 내년 저탄소 건물로 탈바꿈

2026년까지 총 498곳
‘그린리모델링’…968억원 투입



서울시 저탄소건물

서울시는 내년에 공공어린이집 100곳을 저탄소 건물로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1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어린이집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이다.

그린리모델링은 고성능 단열·창호를 보강하고 고효율 냉·난방 시설과 친환경 환기시스템 등을 설치해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것이다.

시는 그린리모델링에 2026년까지 총 968억원을 투입, 총 498개 어린이집의 에너지 성능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서울지역 온실

가스 배출량의 69%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고 어린이집의 실내환경을 더욱 편안하게 바꾼다는 목표다.

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공공어린이집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157곳에서 사업이 완료됐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10만t

/ 김유정 기자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개관 5주년 특별전

김병종 40년, 봇은 잠들지 않는다

1부. 화홍산수, 송화분분, 풍죽 ('22. 09. 02. ~ 11. 13.)

2부. 바보예수, 상선약수 ('22. 11. 23. ~ '23. 02. 26.)

3부. 숲에서 ('23. 3. 21. ~ 6. 25.)

4부. 길 위에서 “남미부터 북아프리카까지” ('23. 07. 04. ~ 10. 29.)

화홍산수 꽃이 활짝

송화분분 풍죽 바람에 날리면

2022. 09. 02.^{FRI}
— 11. 13.^{SUN}

씨를 품고

한국미술전시회

민주, 감사원 직권남용 고발키로…‘文 서면조사 통보’ 강력 반발

범국민 저항운동도 제안…尹이 휘두르는 칼날,尹 발등에 꽂힐 것”



민주당, 감사원의 표적감사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3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에 반발,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34개 분야에 달하는 특정사안 감사를 새로 시작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고, 특정감사의 취지와 어긋나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적인 감사의 방법 등도 감사원에 적용돼야 하는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다면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사

무총장 등 구체적인 고발 대상, 고발 시기는 조만간 더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는 “아직 서훈·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데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며 “누구의 입에서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물어볼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니냐”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온 모든 소란의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외교 중 ‘비속어 논란’ 등에 휩싸인 점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이기에, 다시 검찰의 칼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우므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며 ‘질문서를 보낼 테니 서면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서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으며, 이메일을 즉시 반송 처리함으로써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했다.

/ 송원기 기자

野 “국민대·숙대 총장, 국감 무시한 채 해외 출장”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재조사 결과와 관련해 임종재 총장을 향한 방문, 면담하고 있다. 원쪽부터 문정복, 김영호,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3일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핵심 증인으로 체택된 국민대·숙명여대 총장 등이 4일 국감을 앞두고 해외 출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히고,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로 당신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임종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체택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 총장은 이날 몽골로 출국해 오는 10일 귀국하고, 지난 2일 출국한 장 총장은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두 사람을 비롯해 교육위 국감 증인으로 체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역시 장기간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김 여사의 표절 논문의 유통으로 국민대·숙대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두 총장이 국감을 무시한 채 해외출장을 떠나는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넘어 울분을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 정찬양 기자

尹대통령 “어르신 존경과 예우, 의무이자 번영의 시작”

노인의날 페이스북 메시지…“어르신 돌봄 체계 확대” 약속

지상승세(32.3%→32.6%→34.4%→34.6%)을 보여왔지만, 9월 4주째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2.3%포인트↑)에서 상승했지만, 부정 평가는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8.1%포인트↑), 부산·울산·경남(3.5%포인트↑)을 비롯해 인천·경기(5.8%포인트↑)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 김민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미래 번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그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를 일궈온 땀과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독립투쟁의 현장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조국 수호의 현장, 가난을 벗어나게 한 산업 발전의 현

장,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 인재를 키워 낸 교육과 문화의 현장에도 모두 우리 어르신들이 계셨다”고 기렸다. 이어 정부가 내년도 노인 관련 예산을 증액한 점을 거

론하며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와 요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역 내 돌봄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의 기틀을 잡아주신 어르신들께서 존경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손해원 기자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감동의정!

제9대 동두천시의회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AI의 미래가 궁금해

AI시대를 이끌어 갈 우리의 학생과 청년들이
더 멀리 보며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LG의 다양한 AI교육프로그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LG

대법관 공백 한달…국회 인준 중단에 대법원 ‘냉가슴’

오석준 후보자 인준 중단으로 ‘미쓰비시 자산 매각’ 등 결론 기약없어

‘대법관 공백’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주요 사건이 산적한 대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야권의 반대로 멈춰 섰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재형(57·18기) 전 대법관이 지난달 5일 퇴임하면서 그가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3부 사건 330건(민사 200건·형사 86건·특별 44건)의 결정은 기약이 없어졌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과 관련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문제 같은 민감한 사건도 그중 하나이다.

대법관 공백은 사회적 쟁점에 가치의 준거를 최종으로 제시하는 전원합의체 판결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은 모두 14명이다. 이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뺀 12명은 소부 3곳에 4명씩 배치된다. 소부에서 심리하는 사건은 대법관 1명이 주심을 맡고 나머지 3명과 합의해 결론을 도출한다. 통상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열리는 소부 합의에서 대법관 1명이 100여건씩 사건을 처리한다. 김 전 대법관의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도 그가 소속됐던 3부에 남은 재판관 3명 각자가 주심인 사건은 판결을 내릴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김 전 대법관의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임자가 배당받아야 했을 사건이 다른 대법관에게 추가로 배분돼야 해 가뜩이나 사건 적체가 심한 대법원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대법원 1명이 한해 맡는 주심 사건은 평균 3천665건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12명이 나눠 맡을 사건이 11명에게 가니 전체적으로 적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백이 장기화하면 회복하는 데도 오래 걸릴 것”이라고 했다.

전원합의체 선고가 ‘올스톱’됐다는 것은 더 큰 제다. 전원합의체는 사안이 까다롭고 대법관의 의견이 갈려 소부에서 다

를 수 없을 때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

해야 할 때 소집되고, 통산 한 달에 한 번 정도 선고를 내린다.

판결 하나하나의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소부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해 과반 의견에 따른 결론을 도출한다. 현행법상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새 대법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고 본다.

찬성·반대 숫자가 같아지는 ‘가부동수’(可否同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원합의체 재판관 숫자가 홀수여야 하는데 공백이 있는 지금은 대법원장까지 총 12명이 되기 때문이다. 전원합의체의 표결

결과가 ‘11대1’처럼 압도적인 다수 의견이 나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도 적지 않다.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은 서로 토론·설득을 하면서 자기 입장을 정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새 대법관이 언제 임명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는 합의를 시작하기 힘들다는 것이 대법원 안팎의 시각이다. 대법관이 ‘총 12명’ 구조를 상정하고 상호 토론·설득을 하는 것과 ‘13명’을 전제로 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서다.

현재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인 사건은 7건 정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은 원래 지난달 22일로 예정됐던 전원합의체 선고를 무기한 연기하고 심리만 진행했다. 대법원 내부에선 앞으로도 새 대법관이 올 때까지 전원합의체 선고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원합의체 공전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전원합의체 감’이지만 아직 회부조차 안 된 사건의 향방이다.

정부·여당·재계의 반발로 노란봉투법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넘겨져 현행 노동법 적용 기준이 바뀐다면 굳이 새 입법을 거치지 않아도 단체행동권이 보다 명확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노승만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8월 14일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수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섬진강 유역 수해 피해지역 복구사업 현장점검

이상민 장관은 구례군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현장 상황을 방문해 당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배수펌프장 설치, 하천 정비사업 등 구례읍, 문척면을 비롯한 5

개 읍·면 지역에 걸친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피해 재발 방지 및 예산을 절감하는 등 복구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서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 재해복구사업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공사와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섬진강의 지류 하천인 마산천을 방문해 당시 제방 유실, 농경지 침수 등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복구 사업 추진 상황을 살피 뒤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우기 전까지 복구를 완료해달라고 말했다.

/ 민수호 기자

권익위 중앙행심위 상임위원 등 정부 개방형직위 22개 공모

인사혁신처는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2022년도 10월 정부 개방형 직위 지원 서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정부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으로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다.

이번에 공모하는 자리는 총 22개다.

국방부, 외교부 등 18개 부처에서 고위 공무원단 10개 직위와 과장급 12개 직위를 공모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국민권익위 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 상임위원, 국방부 국방홍보원장 등은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 홈페이지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권유희 기자

대법, ‘계엄령 문건 은폐’ 기무사 장교 유죄 확정

‘계엄 검토 문건’ 숨기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간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방첩정책과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기무사 지휘부의 지시로 구성된 ‘계엄 TF’는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여기에는 계엄이 시작될 경우의 단계별 조치사항 등이 담긴 시국 대비계획이 담겼다.

A씨는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은 은폐하기 위해 실제 TF가 한 일과 무관한 ‘방첩 수사 업무체계 연구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인력 파견·예산

기무사 계엄령 문건 세부 자료

위수령 계엄선포·계엄수행 등 4가지
21개 항목 총 67페이지

- ‘계엄 해제’ 관련 자유한국당 표결 불참 계획
- 국회의원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 유도
- 방송사·신문사·통신사 요원 편성해 보도통제
- 계엄 성공 위한 보안유지·신속한 선포 적시

(특근매식비) 신청 공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TF는 2017년 3월 초 계엄 검토 문건 최종본이 완성되면서 종료됐다. 계엄 검토 문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한 TF는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 이 문건을 ‘훈련비밀’로 등재하기로 했다.

A씨는 문건 제목 일부를 ‘훈련에 관련된 것’으로 수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전 자기록 등 위작)도 받았다. 이후 A씨는 군 검찰에 의해 공범인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과 함께 기

/ 김철기 기자

지금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감기약?

10년 연속 판매 1위 감기약
판파린

감기 조심하세요~
판파린® Q

온기·습기·열기·증기

판파린® Q

금융공기업 지분매각 예정 기업 10여곳

산은 등 5개 기관 혁신계획안 정부 제출…보유자산 정리계획 보고



산업은행 여의도 본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공기관이 수년 내 보유지분 매각 방침을 세운 출자기업이 1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그룹이 인수기로 한 대우조선해양 [042660]을 제외하고서도 HMM, 금호타이어 [073240], 한화생명 [088350] 등이 적지 않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대상 기업으로 꼽힌다.

3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혁신계획'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5개 금융공기업이 2년 이내

매각 착수 대상으로 보고한 출자기업은 총 12개사(계열회사 및 페어퍼컴퍼니, 극소수 지분 제외)다.

앞서 정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기관이 핵심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의 정비 계획을 포함한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해 8월 말

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바 있

다. 기관별로 보면 채권단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은행이 출자지분 보유 회사가 가장 많았다.

대우조선, 금호타이어 등 7개사는 2016년 산은이 혁신 방안을 수립하면서 일찌감치 지분매각 방침을 세운 곳이다.

산은 보유지분 중 가장 덩치가 큰 대우조선은 최근 한화그룹과 조건부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앞으로 투자 합의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중 한화그룹에 인수될 전망이다.

금호타이어는 회사의 경영개선 및 주가 추이 등을 고려해 채권단 공동으로 매각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금호타이어는 2018년 중국 더블스타에 인수된 뒤에도 우리은행(7.8%), 산은(7.4%) 등 채권단이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케이조선(옛 STX조선해양·산은 지분율 2.6%), KG스틸 [016380](옛 동부제철·1.5%), 서진캠(8.1%), 환영철강공업(14.3%) 등 4개사는 잔여 지분을 대주주

협의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GM(17.0%)은 2016년 혁신방안 매각대상 7개사에 포함됐지만, 2018년 정부

와 GM 간 합의에 따라 2028년까지 지분매각이 보류된 사례다.

이들 7개사 외에는 KDB생명보험(92.7%)이 최우선 매각 대상으로 꼽힌다. KDB생명은 JC파트너스가 인수할 예정이었으나 대주주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지난 4월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HMM[011200](20.7%)의 경우 산은은 '매각 시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보고에서 지분 매각대상 리스트에 올리진 않았다. 다만, 시장 안팎에선 HMM의 경영 여건이 개선된 점을 고려할 때 증시 여건에 따라 산은 등이 지분매각 추진에 나설 것으로 내다본다.

실제로 신보의 경우 HMM 보유 지분(5.0%)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매각하겠다고 보고해 산은과 판단을 달리했다.

다만, 신보 역시 매각 계획에 대해 "정부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전제를 달았다.

한편 산은은 한진칼 [180640](10.6%) 지분에 대해선 "향후 운송사업 경쟁력 제고방안 추진이라는 출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매각 대상에서 제외했다.

/ 신재일 기자

삼성SDI, 2050년까지 국내외

전 사업장 재생에너지 사용

삼성SDI[006400]가 2050년까지 국내외 전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등 탄소중립 달성을 적극 추진한다. 삼성SDI는 3일 이런 내용의 '친환경경영'을 선언하고, 세부 전략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삼성SDI는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내외 전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헝가리와 토론토, 말레이시아 등 해외 사업장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삼성SDI는 최근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이다.

삼성SDI는 또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대체하는 등 LNG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탄소발자국 인증 제품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삼성SDI는 탄소발자국 산정을 위한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배터리의 제조 / 정영택 기자

전부터 폐기까지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 탄소발자국 인증 제품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회사의 업무용 차량을 무공해 전기차로 전환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SDI는 또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폐배터리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한 배터리 핵심 원소재 재활용 비중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삼성SDI는 라인 공정 내 발생하는 폐기물에서 배터리의 핵심 원소재를 회수하고 배터리 제조에 재활용하는 체계(Closed-loop)를 2025년까지 전 세계 생산 거점으로 확대·구축할 계획이다. 또 올해 5월 연구소 내 '리사이클 연구 랩(Lab)'을 신설해 친환경 소재 회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회사는 덧붙였다.

이밖에 수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일회용품 사용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토스, 보험에 이용자 정보 팔아" vs "법적문제·부당이득 없어"

황운하 측 "토스, 설계사들에 이용자 정보 판 뒤에 사후 고지"

토스 운영사 "고객 동의 없는 개인정보 판매 없었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이용해 '소개 수수료'를 받고 보험 설계사들에게 이용자 정보를 유상판매한 뒤에 뒤늦게 이용자들에게 고지했다고 3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주장했다.

이 서비스를 사전고지 없이 운영하다

논란이 일자,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6월 '설계사가 고객과 상담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이용 약관에 포함했다고 황 의원 측은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숙 황 의원이 비바리퍼블리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법인

보험 대리점 '리드' 매출로 290억2천만 원을 기록했다.

리드는 보험상담 신청 고객 중에서 범인 보험 대리점과 실제로 연결돼 매출 정산 대상이 되는 고객 데이터를 뜯한다. 토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보험 상담을 신청한 이용자 개인·신용정보 84만9천501 건이 대상이다.

문제가 된 유료 과금 모델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황 의원 측은 "이용자들이 약관을 잘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토스 로고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지 인식하기 쉽지 않다"면서 "지난 6월 비바리퍼블리카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리드 1 건당 6만9천 원에 보험 설계사에게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이용자 약관에 개인정보가 유상판매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 배수빈 기자

KT[030200]는 '와이파이 6E'를 적용한 가정용 와이파이 공유기 '기가 와이파이 프리미엄 6E'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와이파이 6E는 '와이파이 6'를 확장한 표준 규격으로, 2.4GHz·5GHz 주파수에 6GHz 대역(5GHz~7GHz 12MHz)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파수 간섭이 덜해 와이파이 6 공유기 보다 최대 2배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 와이파이 6E 공유기 임대료는 3년 약정 기준 월 7천700 원이다.

내년 3월 31일까지 출시 기념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K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구강본 KT 커스터머사업본부장(상무)은 "가정 내 와이파이 접속 단말 증가와 고품질 콘텐츠 소비 트렌드에 맞춰 제품을 준비했다"면서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서비스 경쟁력을 계속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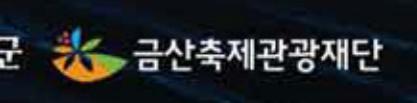
/ 채민서 기자



제40회 금산인삼축제

2022.9.30(금) - 10.10(월)

금산인삼관 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

창덕궁에서 융릉까지…8~9일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서울·수원·화성시 공동개최…

2천700명·말 345필 참여

서울시는 수원시·화성시와 8~9일 역사문화축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을 연다고 밝혔다. 창덕궁부터 수원화성을 거쳐 융릉까지 총 59.2km 중 43.5km 구간에서 1795년(을묘년) 정조대왕 원행(圓幸)을 재현하는 행사다. 원행은 조선 시대 왕이 부모님 소에 행차하는 일을 말한다.

서울에서는 200명이 말 20필을 이끌고 강북구간(창덕궁~종로3가~세종대로사거리)과 강남구간(노들섬~금천구청 앞 사거리~시흥5동 주민센터 앞)으로 나눠 행차한다. 이어 수원·화성에서 총 2천500명이 말 325필을 끌고 안양~군포~의왕~수원~화성까지 행차한다.

특히 노들섬에서 금천구청 앞 사거리



‘2019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렬

로 이동할 때는 ‘미디어 배다리’로 한강을 건너는 장면을 재현한다. 정조대왕 행렬이 한강을 건널 때 사용한 배다리를

연결해 만든 다리)를 LED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로 구현했다. 노들섬 1층 내부에서 잔디광장으로 통하는 중앙통로에 길이

25m, 높이 4m 규모로 설치된다.

행사 당일 노들섬에서는 취타대 공연, 격쟁(백성들이 징을 치며 왕에게 호소하

는 상황극, 대동놀이, 정재(전통무용) 공연 등이 진행된다. 광화문광장, 행궁광장, 융릉 등 주요 거점별로 창덕궁 출궁 의식, 정조가 혜경궁 홍씨에게 미음을 올린 ‘미음다반’, 잡귀를 쫓는 의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인 ‘나례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행사 당일 서울·수원·화성 시내 일부 구간은 교통이 통제된다.

서울 내 통제 구간은 ▲8일 오전 3시~오전 11시 30분 울곡로·돈화문로·종로 일부 구간 ▲7~8일 0시~오후 10시 금천구 대우당역~시흥5동 주민센터 앞 200m 전체 ▲7~8일 오후 4시 40분~오후 5시 42분 금천구청 앞 삼거리~시흥5동 주민센터 앞 일부 구간이다.

자세한 교통 정보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수원시, 화성시 문화재단, 2022 정조효문화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송종호 기자

고양 창릉천, 환경부 통합하천
공모사업 경기도 심사 통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외국어고등학교가 북한산과 한강을 잇는 경기 고양시 창릉천의 통합하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을)은 최근 환경부가 공모 발표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에 고양시 창릉천이 1차 관문인 경기도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은 치수, 이수, 수질 및 환경, 친수시설 조성에 전당 300억 원~4천억 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경기도 내 15개 시군이 공모를 신청했으며, 고양시 창릉천과 평택시 안성천, 군포시 산본천이 함께 선정됐다.

오는 12월 환경부의 최종 선정에서 창릉천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2천7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 고양시 명소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 서정미 기자

해경, 오토바이 전복사고로 다친 관광객 등 병원 이송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40분에는 용진군 문간도에서 주민인 40대 남성 B씨가 술에 취해 2m 높이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머리 부위를 다쳤다. 해경은 영흥피출소 구조조과 경비함정을 투입해 B씨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해경 관계자는 “2명은 부상 정도가 심적도에 급파해 A씨를 인천시 중구 해경 하지 않는 않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 전용부두로 옮겼고, 소방당국에 인계해

농지 매입하고도 농사짓지 않는 ‘가짜 제주 농부’ 극성

주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50대 A씨 등 3명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농지 2만2천600㎡를 매입했다.

A씨 등은 ‘더덕 농사를 짓겠다’며 이 땅을 샀다. 하지만 처음부터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던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농지를 되팔고는 27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제주지법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세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구에 사는 C씨 등 3명과 경북에 거주하는 D씨는 투기나 노후에 주택을 짓고 살 목적으로 2018년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농지 4천932㎡를 지분 조개기

외지인에 공직자까지…끊이지 않는 ‘제주 농지 사랑’

7년 간 처분 의무 부과된 토지만 여의도 5.6배

은 하지 않아 투기 의혹을 받았다.

강 제주시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소유한 농지를 이른 시일 내 모두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어긴 ‘가짜 농부’가 산 제주 땅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1만5천 409필지에 1천621.6㏊로 집계됐다.

서울 여의도(290㏊) 면적의 5.6배에 달하는 규모다. 농지를 매입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이들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가 부과됐다. 행정시별로 보면 제주시가 8천568필지에 846㏊, 서귀

포시가 6천841필지에 775.6㏊다.

적발된 농지는 주로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하는 무단 휴경과 다른 이에 게 불법으로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분 의무가 부과된 농지는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처분 명령까지 받고도 6개월 이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농지의 공시지가 와 토지감정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제주지역에서 7년간 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이행강제금만 34억7천300만원(제주시 26억7천800만원, 서귀포시 7억9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황희정 기자



벤처가 자란다 대한민국이 커간다

세상 밖으로 나온 당신의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되고,
내일의 산업 지도를 바꿀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이 함께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성장의 전 단계를 지원하는 KDB벤처금융

- 벤처기술금융 :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스타트업 투자
- 스케일업금융 : 대규모 투·융자를 통한 차세대 유니콘 육성
- 넥스트라운드 :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플랫폼 운영

한국산업은행 혼법규사업 참여 제2021-11-011(2021.11.26~2022.11.25)
* 신경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상황에 맞아 종분의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거래 전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 납입이 지연될 경우 대출기간 만료가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계약을 수 있습니다. * 한도상 상환의 경우 한도가 초기 조건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환설정서,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문서를 준수하였습니다.
* 자체한 내용은 기관은 협업법에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www.kdb.c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DB산업은행

POCARI
SWEAT

동아오츠카

네 안의
파랑을
깨워봐



러 하바롭스크주서 징집된 예비군 수천명 중 절반 기준 미충족

귀가 조처 후 업무 담당 군사위원 해임…러시아서 무분별 징집 불만 잇따라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 특별군사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 동원한 예비군 수천 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잘못 징집된 것으로 드러나 업무 담당 군사위원이 해임됐다고 3일 인데르파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하일 데그탸료프 하바롭스크 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 “예비군 동원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른 하바롭스크주 군사위원 유리 라이코가 직위에서 해임됐다”고 밝혔다.

데그탸료프 주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부분 동원령을 발령한 이후 하바롭스크주에서는 주민 수천 명이 징집됐다. 그러나 징집센터에 도착한 이들 가운데 절반가량은 예비군 동원 기준에 맞지 않아 짐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귀가 조처된 예비군 가운데는 장



징집센터에 모인 러시아 예비역들

애를 앓는 딸을 허로 키우는 남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데그탸료프 주지사는 “이번 해임 조처가 푸틴 대통령이 설정한 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는 부분 동원령 발령 후 징집 대상을 병사 및 부사관으로 전역한 35 세 이하 예비군, 초급 장교로 전역한 50세 이하 예비군, 고급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55세 이하 예비군 등으로 한정했다.

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1급 장애가 있는 예비군, 16세 이하 자녀를 4명 이상 둔 예비군 등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동원령 집행 과정에서 노인과 환자, 장애인 등 복무가 불가능하거나 면제된 이들까지 무차별로 징집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세르게이 노소프 마가단주 주지사도 지역에서 예비군을 잘못 징집하는 사례가 잇따라자 동부 군관구 지휘부에 업무 담당 군사위원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인데르파스 통신은 보도했다.

이처럼 예비군 징집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자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가 안보위원회 회의에서 “부분 동원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실수를 바로잡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반 사례에 즉각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 한만수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9일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시다 내각 출범 1년…지지율 급락 위기 극복할까

3개월새 지지율 20%p 급락
통일교·아베 국장·고물가 원인

4일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이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작년 10월 4일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취임 직후 중의원(하원) 선거에 이어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도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끌며 장기 집권의 벌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참의원 선거 후 자민당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착 의혹과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내각과 집권 당 내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 각종 여론조사서 내각 지지율 출범 후 최저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448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40%로 한 달 전 조사 대비 1%포인트 떨어졌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역시 아사히 여론조사 기준 내각 출범 후 최저 지지율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3%포인트 오른 50%로 처음으로 절반에 도달했다.

/ 연지민 기자

자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45%로 한 달 전 조사 대비 5%포인트 하락했다고 3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여론조사 기준으로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같은 기간 4%포인트 오른 46%로, 처음으로 ‘지지한다’는 응답 비율을 넘어섰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448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40%로 한 달 전 조사 대비 1%포인트 떨어졌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역시 아사히 여론조사 기준 내각 출범 후 최저 지지율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3%포인트 오른 50%로 처음으로 절반에 도달했다.

인플레이션에 ‘1+1’ 할인행사 사라지는 美 마트

“공급망 문제 해결 전까진 할인 어려울 듯”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물가로 미국 마트에서 익숙한 풍경인 ‘1+1’ 등 할인행사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

다.

현재 미국 식료품점에서 물건을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주는 ‘1+1’ 행사나 21짜리 탄산음료를 1달러가 채 안 되는 가격인

99센트에 판매하는 눈에 익은 할인 행사 를 찾а보는 게 쉽지 않게 됐다.

리서치업체 인포메이션 리소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유통류를 제외한 모든 식료품 할인 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에 비해 떨어졌다.

2019년 3분기에 미국에서 판매된 식음료 제품의 25.7%가 할인된 가격에 판매됐는데, 올 3분기엔 20.6%만이 할인행사 제품에 포함됐다.

WSJ은 일반적으로 식품 제조업체들이 유통업체에 판촉 행사 비용 일부를 지원해왔는데, 제조업체가 공급망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원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해 할인행사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시카고 식료품점 프레시 마켓 플레이스 총괄 매니저 코스타 드로소스는 “최근

한 스프 제조사가 10% 할인 제의를 했지만 거절했다”면서 “스프 맛별로 1천200개를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개월간 요구르트와 우유에 대해 할인행사를 하지 않았다. 고객을 끌어들이는 주력상품에 대한 할인 행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미 중서부 식료품 체인점 B&R 스토어도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닭고기 가공업체인 샌더슨 농장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매주 닭고기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했지만, 샌더스 농장이 지난 2년간 지원금을 끊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할인행사가 줄면서 소비자들의 선택폭도 크게 줄었다.

WSJ은 식품 제조사와 유통업체들은 공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할인행사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김나희 기자

대만군, 화색지대 충돌 대비한 對중국 전파전 강화

대만 국방부가 특정 지역을 분쟁지대로 만들기 위한 중국의 화색지대 충돌에 대비한 대(對)중국 전파전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 군사정보국(MIB)은 2023년 1억 대만달러(약 45억 2천만원)를 투입해 신형 단파안테나 기지

를 구축, ‘대북 방송’과 같은 형태의 대중국 방송 강화에 나선다.

대만군 측은 이번 신형 단파안테나를 이용한 방송을 통해 중국에 대한 대만의 방송 콘텐츠 전송 외에 선전 전파 및 정보 작전 수행과 연락 임무 등을 새롭게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위승연 기자



99센트에 판매하는 눈에 익은 할인 행사 를 찾а보는 게 쉽지 않게 됐다.

리서치업체 인포메이션 리소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유통류를 제외한 모든 식료품 할인 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에 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새로운 에너지미래,
Go with KEA**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물과
어디서든 쉽게 충전하는 친환경 자동차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새로운 미래, 에너지·기후변화대응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 열어갑니다.

‘정부 자체 요청에도’…탈북단체 밤사이 또 대북전단 살포

권영세 “굉장히 유감…북한이 도발 구실삼을 가능성”



탈북자단체 밤사이 또 대북 전단 살포

통일부가 최근 국내 민간단체들에 대북 전단 살포를 자체해달라고 촉구한 가운데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1일 오후 경기 파주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약품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1일 오후 10시경 경기 파주시에서 마스크와 태블릿, 비타민C,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사회문화 발전 역사를 수록한 소책자, 북한 자유 주간을 맞아 미국 상·하의 원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동영상

이 담긴 이동 저장장치 등을 대형adr발

룬 8개에 매달아 보냈다”고 설명했다.

대형 애드벌룬에는 ‘핵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김정은은 인류가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함께 달았다.

이 단체가 풍선을 보내던 중 첨보를 입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미처 날리지 못한 대형 풍선 등 물품을 압수했고, 박 대표를 체포한 뒤 파주경찰서로 연행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는 지난달 25일부터 전날까지 진행된 제19회 북한 자유 주간을 맞아 북

한 김정은의 핵 무력 범제화와 잇단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고 코로나19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한 마스크 등 방역물자를 보내기 위해 비공개로 대형풍선을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잇단 우려를 표시하고 자체를 재차 당부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자유북한연합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우려했다.

권 장관은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 전단 금지 조항 자체는 제가 반대하지만,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느냐. (북한이) 대북 전단을 (도발) 구실로 삼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거듭 자체를 요청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3일 국내 민간 단체들에 대북 전단 살포를 자체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북한에는 전단 살포를 빌미로 도발할 경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정부의 거듭된 자체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등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며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자체 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 조규돈 기자



동해에서 진행 중인 한미 해상 연합훈련 사흘째인 28일 미국은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 76)에서 헬기가 이착륙하는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

북, 연합훈련 참가 레이건호 ‘파철덩이’ 조롱…“얼간망둥이들”

선전매체 “미국 모든 핵무기 끌어들여도 놀랄 우리 아냐”

난 9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3차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라는 것을 벌려놓고 미국의 핵무장 장비들의 정기적인 조선반도 전개를 논의했다”며 로널드 레이건호를 동원한 한미 해상 연합훈련도 그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장본인인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 연습을 미친 듯이 벌려놓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 고뢰역적패당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남쪽에 돌렸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인 로널드 레이건호는 지난달 23일 부산에 입항, 26~29일 한미 해상 연합훈련과 30일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에 참여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레이건호 입항 이를 뒤인 지난달 25일부터 국군의 날인 전날까지 일주일간 4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 하지선 기자

북한은 최근 동해에서 실시한 한미 해상 연합훈련과 대잠훈련에 각각 참가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파철 덩어리”라고 조롱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고뢰들이 미국의 떠

다니는 군사기지를 조선반도(한반도)에

끌어들여 전쟁연습을 벌려놓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력에 비한 저들의

군사적 열세를 만회해보자는 음흉한 타산과, 미국의 핵 전략자산들에 의거해서라

도 우리를 기어이 힘으로 압살해보겠다는

집요한 침략 야욕의 더러운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 역시 이

날 ‘입에 칼 물고 광기를 부려대는 기형아들’ 기사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냈

다.

매체는 “윤석열 역적패당은 우리 공화

국이 국가 핵무력 정책을 법화한 이후 지

北, 김정은 시정연설 후 산학협력 박차…교류막혀 국내교육 중시

김일성대·김책공업대 등
기업체와 협력·연구사업 주력

북한이 ‘과학기술 강국’을 기치로 내걸고 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산학협력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대북 제재 등으로 외부와 지식 교류가 끊긴 상황에서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과학교육 개혁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북한 교육위원회가 대학에서 기업과 기술협력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최고 명문대인 김일성종합대학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실천능력을 갖춘 인재육성에서 기업체들과의 기술협력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기에 힘을 넣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모란봉자동화기구공장 등 여러 공장, 기업소에 나간 대학의 연구 역량(인력)은 현장 기술자, 노동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생산 정상화와 제품의 질 제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새 제품개발 사업에서 제기되는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최고 명문 공과대학인 김책 공업종합대학에서도 산업 현장 및 경



북한 대학생들의 교복

영활동과 관련한 연구 사업에 우수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김 위원장은 최고 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학에서 실용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며 교육 개혁을 주문하기도 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교육과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기술대학의 교육 수준을 끌어올려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016년 채택한 대북제재결의안에 따라 해외와 학술 교류와 기술 협력 등이 사실상 끊겨 국내 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과학기술 강국’을 기치로 내걸며 관련 분야에서 교육 수준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과학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향후 기술·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취지다.

노동신문은 지난 3월 “교育과 과학 연구, 생산의 일체화가 실현돼야 대학들이 유능한 인재들을 키워내고 현실에서 결린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힘있게 떠밀고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김유정 기자



바로주유 바로혜택 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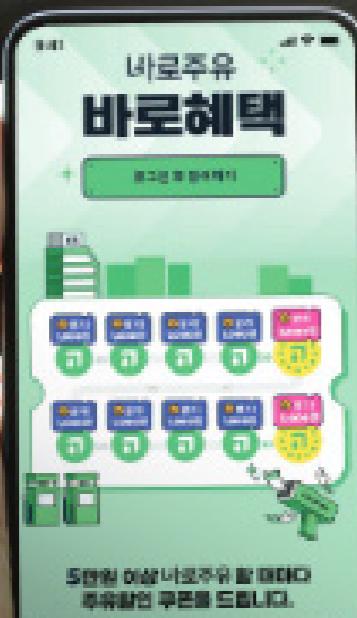
5천원 이상 바로주유 할 때마다
주유 할인금은 1,000원 제공

친구초대 EVENT

친구가 바로주유 할 때마다
친구도 나도 할인
(주유 세제 할인 3,000원 즐기)

스탬프 EVENT

5개 이상 바로주유 할 때마다
모두 모으면 총점 Point 1,000 포인트 지급



바로주유 바로혜택

바로주유 바로혜택

5천원 이상 바로주유 할 때마다
주유 할인금은 1,000원 제공

친구초대 EVENT

친구가 바로주유 할 때마다
친구도 나도 할인
(주유 세제 할인 3,000원 즐기)

스탬프 EVENT

5개 이상 바로주유 할 때마다
모두 모으면 총점 Point 1,000 포인트 지급

Energy plus

**스마트한 소비자의 슬기로운 주유생활
에너지플러스 앱!**

GS칼텍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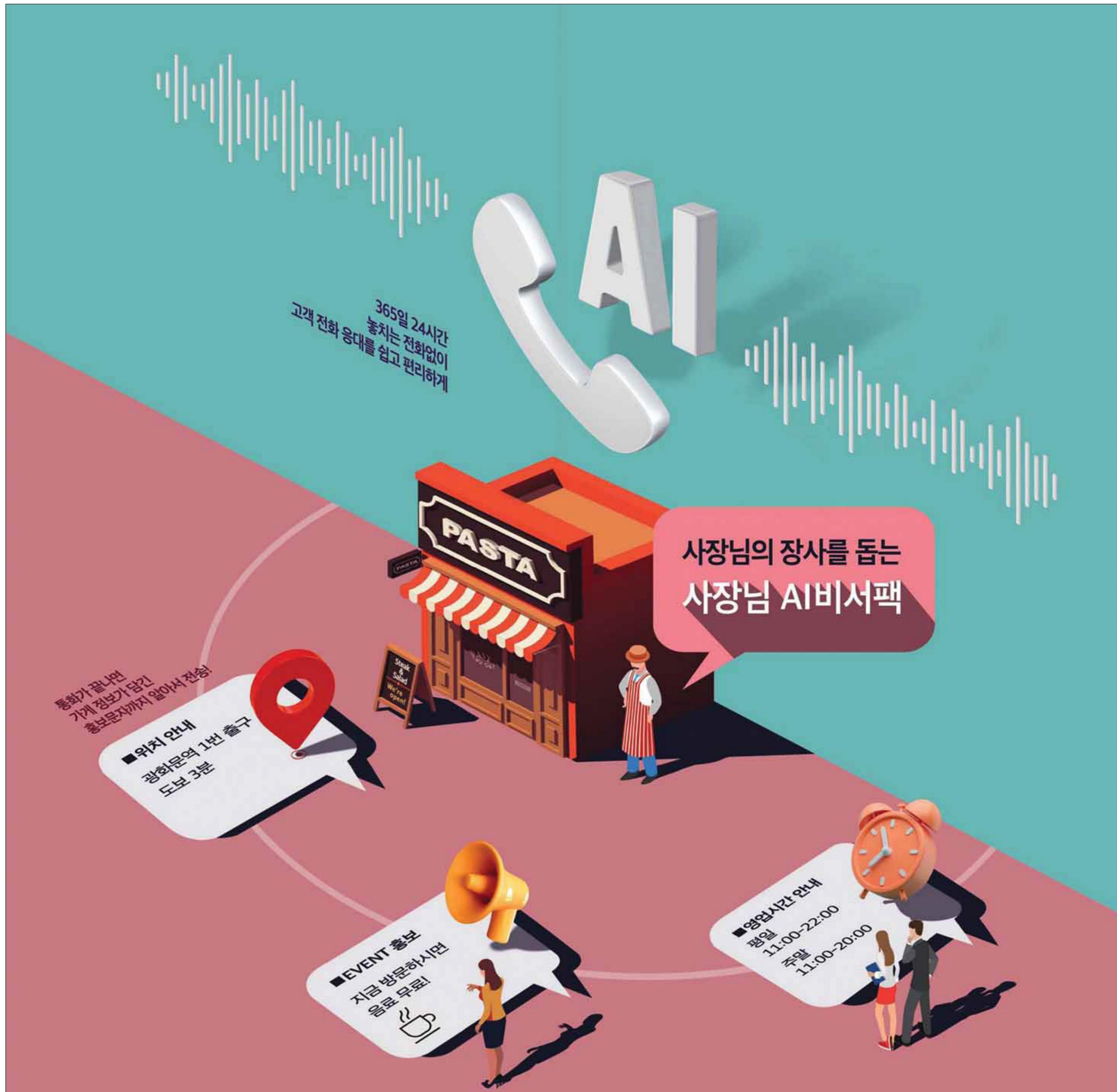
에너지에 힘껏 살아요



Mobility & Life를 더하다



에너지에 힘껏 살아요



예약·문의 전화도
어려웠던 홍보도
모두 다 편한 일로

[사장님 AI 비서팩]이 알아서 척척 해결해요!

고객 전화 한 통, 한 통이 소중한 사장님을 대신해
AI가 전화응대를 도와주고 가게정보 안내와 홍보까지 해주니까

사장님의 장사가 더욱 편해지도록
KT가 함께 일하겠습니다.



지금 QR코드 찍고 'KT 사장님 AI 비서팩'을 만나보세요!

이용문의 100번 | kt.com

DIGICO KT

손흥민, 껄끄러운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UCL 첫 골 도전



분데스리가 시절 7경기 나서 1골만 넣어…팀 전적 1승 1무 5패
지난주말 북런던더비 완패한 토트넘, 분위기 반전 필요

프랑크푸르트의 도이체방크 파크에서 프랑크푸르트(독일)와 2022-2023시즌 UCL 조별리그 D조 3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1승 1패로 조 2위(승점 3)에 자리한 토트넘은 프랑크푸르트전에서 승리하면 조 1위로 올라설 수 있다.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라도 승리해야 하는 경기다. 토트넘은 1일 아스널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북런던 더비에서 에메르송 로알의 퇴장 악재 속에 1-3으로 완패했다.

손흥민은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만만치 않은 독일 팀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시즌 마수걸이 골 사냥에 나선다.

토트넘은 5일 오전 4시(한국시간) 독일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와 레버쿠센에서 뛰던 시절 프랑크푸르트를 총 9차례 상대했다. 그중 7경기에 출전했는데, 이들 경기에서 손흥민의 득점은 단 1골에 불과하다.

함부르크 소속이던 2012-2013시즌 3라운드에서 골맛을 본 게 전부다. 당시 함부르크는 2-3으로 졌다.

독일축구협회(DFB)-포칼 전적까지 더해 손흥민은 프랑크푸르트와 경기에서 1승 1무 5패를 기록 중이다.

프랑크푸르트는 손흥민에게 껄끄러운 상대라 할 만하다. 최근 경기력도 좋다. 개막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에 1-6으로 대패하며 시즌을 시작한 프랑크푸르트는 이후 경기력을 끌어올리더니 최근 5경기에

서는 4승 1패를 기록 중이다.

지난 주말에는 1위 팀 우니온 베를린을 상대로 2-0 완승을 했다.

만만치 않은 상대이지만, 팬들은 손흥민이 득점포를 가능해 '에이스'의 존재감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해야 이어지는 빠른 경기 일정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트넘은 이번 프랑크푸르트전에 이어 9일 리그 4위 브라й턴과 원정 경기, 13일 프랑크푸르트와 홈 경기, 16일 에버턴과 홈 경기, 20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 등을 3~4일 간격으로 치러야 한다.

/ 고민수 기자



KT컵대회 첫승 이끈 양홍석
“대표팀서 부진 만회하고파”

“대표팀에서 제 경기력은 제가 봐도 형편없었습니다.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프로농구 수원 kt의 포워드 양홍석이 을여름 국가대표팀에서 부진을 새 시즌 활약으로 만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홍석은 2일 경남 통영체육관에서 열린 2022 MG 새마을금고 KBL 컵대회 조별리그 B조 1차전 원주 DB와 경기에서 약 31분간 18점 6리バ운드를 올리며 88-84 승리를 이끌었다.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격 리바운드 싸움에 가담한 양홍석의 분전에 힘입어 kt는 리바운드(47-43), 공격리바운드(18-15) 모두 DB에 앞섰다.

승부처마다 외곽포도 터뜨리며 36점 14리바운드로 혼자서 2인분을 한 외국인 선수 이제이 아노시케를 지원했다.

2쿼터 중반까지 두 자릿수 점수 차로 뒤지던 kt는 양홍석과 아노시케의 활약으로 후반 DB를 몰아치며 역전에 성공했다.

양홍석은 경기 후 취재진과 만나 “시작이 좋다. 앞으로도 차분하게 경기를 하겠다”며 “후반의 경기력이 우리의 농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농구란 ‘다이내믹’”이라며 “앞선에서 정성우 형, 박지원 등이 뛰어 다니고 골밑에서는 하윤기가 날아다닌다. 내가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날아다니려고 한다”고 웃었다.

양홍석은 을여름 국가대표팀에 소집돼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안컵 출전한 경험을 언급하며 농구에 더 매진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팀에서 형편없는 경기력을 이번 시즌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다”고 되짚었다.

장신 포워드를 선호하는 주일승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 발탁된 양홍석은 최준용(SK), 송교창(상무) 등 자신보다 더 크고 빠른 포워드에 밀려 많은 출전 시간을 받지는 못했다.

조별리그 상대 중 약체로 평가받는 바레인전에서 선발로 출전하긴 했지만 인상적 활약을 보이진 못했다.

양홍석은 “대표팀 경험을 생각해 더 (농구를) 갈고닦았다”면서 “이번 비시즌 농구를 많이 접하려 했고, 농구에 대해서 (주변에) 많이 물어보고 다녔다”고 했다.

대표팀에서 공격보다는 대인, 팀 수비에서 역할을 주문받았던 양홍석은 이날 내외곽에서 수비 존재감을 보였다.

김종규, 강상재, 드완 에르난데스 등 DB의 높은 뷔맨진에 맞서 팀을 지키면서도 외곽까지 코트 전역을 뛰어다니는 활동량을 자랑했다.

이에 서동철 감독은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 양홍석이 달라졌다. 가드진과 함께 수비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다”고 흡족해했다.

/ 양희섭 기자

가을야구 매직넘버 ‘3’…김종국 KIA 감독 “자력 확정에 집중”



시즌 막판 9연패로 5위마저 위태로웠던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전열을 재정비해 가을야구에 성큼 다가섰다.

KIA는 2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 승리로 5위 확정을 위한 매직넘버를 ‘3’으로 줄였다. KIA는 남은 5경기에서 3승을 거두면 자력으로 와일드카드 진출을 확정하고, 2경기 차 6위인 NC 다이노스 경기 결과에 따라 더 일찍 삼부포인을 터트릴 수도 있다.

3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LG 트윈스전이 비로 취소된 뒤 만난 김종국(49) KIA 감독은 “이제 선수들이 안정됐다. 투수와 타자 모두 집중력이 좋아졌고,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뿐만 아니라 선수들 모두 자력 5위 확정을 위해 좀 더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IA가 일찌감치 매직넘버를 모두 지워 버릴 수 있다면, 그만큼 빨리 포스트시즌 준비에 들어갈 수 있다.

김 감독은 “일찍 순위가 결정된다면, 선발투수들은 휴식을 줄 예정이다. 임기



40개월 만에 KPGA 우승
이형준, 세계랭킹 489위

한국프로골프(KPGA)코리안투어 현대 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서 연장전 끝에 우승한 이형준(30)이 세계랭킹 500위 이내로 진입했다.

이형준은 3일 발표된 주간 남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489위로 올라섰다. 지난주 630위에서 630위로 올라섰다.

이형준은 3년 4개월 만에 코리안투어 통산 6번째 우승을 거뒀다.

/ 정수호 기자

/ 이승재 기자

/ 정수호 기자

시범사업 기간

2022년 7월 4일 ~

2023년 6월 30일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054-280-4170
대표번호 1577-1000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아픈 근로자도 소득 걱정 없이 쉬세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함께합니다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포항시

블랙핑크 2집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4위…2주 연속 ‘톱 5’



블랙핑크

걸그룹 블랙핑크의 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2주 연속 '톱 5'에 머물며 흥행 가도를 이어갔다.

2일(현지시간) 공개된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 앨범은 2주차 순위에서 전주보다 3계단 떨어진 4위를 기록하며 최상위권 유지에 성공했다.

'본 핑크'의 판매량은 전주보다 60% 하락한 4만장 상당으로 집계됐다. '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 등 전통적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EA), 디지털 음원 디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EA)를 합산해 앨범 소비량 순위를 산정한다.

지난주 블랙핑크는 이 앨범을 10만2천 장가량 팔아치우며 K팝 걸그룹 최초로 '빌보드 200'에서 1위에 오른 바 있다. K팝 가수가 '빌보드 200' 정상을 찍은 것은 방탄소년단(BTS), 슈퍼엠, 스트레이 키즈에 이어 네 번째였다. 블랙핑크는 이 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차트뿐만 아니라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톱 100' 1위도 기록해 세계 애니메이션 차트로 불리는 영미 차트에서 정상을 밟은 아시아 최초 여성 아티스트가 됐다. / 김민경 기자

배우 박은빈, 美 크리틱스초이스 주관 행사서 라이징 스타상

배우 박은빈이 미국비평가협회(CCA) 주관 행사에서 라이징 스타상을 수상했다.

미국비평가협회는 지난 30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시네마&TV 창립 기념 행사(Asian Pacific Cinema & Television, 이하 'APCT')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박은빈은 이번 행사에서 라이징 스타(Rising Star Award for TV) 수상자로 선정됐다.

영화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은 디



렉터 어워드(Director Award), 드라마 '오징어 게임' 활동력 감독은 TV부문 디렉터 어워드(Director Award for TV)를 수상했다.

APCT는 올 한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영화, 방송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이다. 크리틱스초이스 어워즈 등을 주관하는 미국비평가협회에서 올해 새롭게 개최했다.

APCT는 내달 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페어몬트 센추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다.

BTS·이문세·앤 마리·페퍼톤스 가을 맞아 야외 공연 잇따라

50인 이상 공연 등 실외 행사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올가을 '노마스크'로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가요계에서는 때마침 방탄소년단(BTS)을 필두로 이달 굽직한 야외 콘서트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음악 팬들의 기대를 키우고 있다.

2일 가요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오는 15일 오후 6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무료 콘서트 '옛 투 캠 인 부산'(Yet To Come in Busan)을 연다.

이 공연은 지난 3월 서울 잠실주경기장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국내 콘서트로 일찌감치 관심을 끌었다.

이 콘서트는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5만명 안팎의 관객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인기로 매진 사례를 기록한 방탄소년단인 만큼,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의 '예매 전쟁'은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다. 공연 좌석은 당연히 전석 매진된 상태다. 특히 해운대 해수욕장 특설무대는 별도 예매없이 누구나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백하영 기자

'공조2' 600만 관객 돌파 올해 한국 영화 3번째

분기준 영화 공조2의 관객수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 개봉 26일만이다.

올해 한국영화에서는 '범죄도시2', '한산: 용의출현'에 이어 세번째다. '공조2'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제치고 올해 개봉한 영화 중 흥행 4위에 올라섰다. 올여름 최고 흥행작인 '탑건: 매버릭'이 개봉 30일째 600만 관객을 넘어선 것보다 빠른 속도라고 CJ ENM이 전했다.

공조2는 글로벌 범죄 조직을 잡기 위해 다시 만난 북한 형사 '림철령'(현빈)과 남한 형사 '강진태'(유해진), 뉴페이스인 해외파 FBI 요원 '잭'(다니엘 헤니) 등의 삼각 공조 수사를 그린 영화다. / 정영택 기자



영화 '공조2: 인터내셔널'(이하 공조2)이 2일 600만 관객을 돌파했다.

CJ ENM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

휴 잭맨, 영화 '데드풀3'에서 울버린 역할로 '귀환'

호주 출신의 할리우드 배우 휴 잭맨이 영화 '데드풀3'에서 울버린 역할로 복귀한다.

데드풀 시리즈의 주연배우 라이언 레이놀즈는 27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잭맨이 2024년 9월 개봉하는 '데드풀3'에서 울버린 역할을 다시 맡을 것이라고 공개했다.

잭맨은 2000년 '엑스맨'에서 인기 히어로 캐릭터 울버린을 연기해 세계적인 스

타로 발돋움했다.

이후 17년 동안 9편의 영화에서 이 캐릭터를 전담했고, 2017년 영화 '로건'을

곁으로 울버린 역에서 하차했다.

하지만, 잭맨은 이번에 '데드풀3'로 팬들에게 울버린의 귀환을 알리게 됐다.

연예체 버라이어티는 울버린 역할의 잭맨이 데드풀3에서 어떤 설정으로 등장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 강동호 기자

쏟아지는 여행 예능…절친부터 가족까지 '찰떡 호흡' 출연진

코로나19로 한동안 보기 어려웠던 여행 예능이 최근 들어 쏟아지고 있다.

1일 방송가에 따르면 오랜 시간 동료나 선배로 같이 방송 활동을 했거나 가족인 출연자들이 '찰떡' 케미(호흡)를 자랑하며 함께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날 첫선을 보인 TV조선 '여행의 맛'은 30년간 동료로 지낸 코미디언들의 조

합을 내세웠다.

대회를 좋아하는 개그맨들의 모임인 '조동아리' 멤버 지석진, 김용만, 김수용과 지난 3월 '놀면 뭐하니'에 게스트로 나와 MC 유재석의 혼을 빼놓는 입담으로 화제를 모은 이경실, 박미선, 조혜련이 출연한다.

'여행의 맛' 연출을 맡은 김진 PD는 최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이분들(출연진)이 한 방송에서 만난 적이 없다는 이야기

를 듣고, 모여서 방송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출연자들은 '조동아리' 팀과 '센 언니' 팀으로 나눠 직접 해외여행 코스를 짜고 곳곳을 누빈다. 이들은 첫 여행지 괌에서 월 새 없이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서로의 말꼬리를 잡으며 티격태격하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지난 23일 첫선을 보인 '이젠 날 따라와'에는 '아빠 어디가'에 출연했던 이종혁-준수, 윤민수-후 부자와 '슈퍼밴이 돌아왔다'의 추성훈-사랑, 이동국-재시 부녀가 나온다. / 한애민 기자

검찰연합일보

www.unionilbo.com

회장·발행인	송 원 기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이 수 진	대표전화	1533-1545
인쇄인	한 현숙	E-mail	mbc0300@gmail.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신 선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영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청정원



DAESANG

정원이라면, 만족할 만두 하지

HOME:ings
호밍스



금융의 모든 순간 *

NH농협금융

대한민국 걸어서 누비고 최대 연 6.35% 금리까지 누리자!

NH걷고싶은 대한민국 적금

이제 빙구석 여행의 시대는 끝! 대한민국 구석구석 직접 보고 걸으며
내 건강과 환경도 지키고, 우대금리까지 누리세요!

All

최대 6.35% 금리가 쌓이는 NH걷고싶은 대한민국 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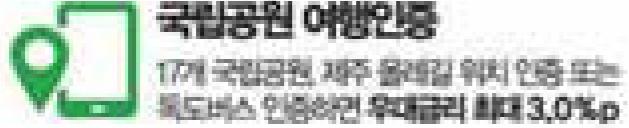
국립공원 여행인증
17개 국립공원, 제주 몰래길 위치 인증 또는
목도버스 인증하여 우대금리 최대 3.0%p

누적 걸을 수 인증
대한민국 인데 어디에서나 일상 속 누적
걸을 수 체크하면 우대금리 최대 0.7%p

자원봉사 인증
국립공원 보전 및 관리 활동 등
자원봉사 인증하면 우대금리 0.3%p

2.35%(기본) + 4.0%p(우대)
적용금리 최대 연 6.35%

* 2022년 7월 20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우대금리입니다.



국립공원 여행인증

17개 국립공원, 제주 몰래길 위치 인증 또는
목도버스 인증하여 우대금리 최대 3.0%p

누적 걸을 수 인증

대한민국 인데 어디에서나 일상 속 누적
걸을 수 체크하면 우대금리 최대 0.7%p

자원봉사 인증

국립공원 보전 및 관리 활동 등
자원봉사 인증하면 우대금리 0.3%p

2.35%(기본) + 4.0%p(우대)

적용금리 최대 연 6.35%

* 2022년 7월 20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우대금리입니다.

* 이 제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받는 본 은행에 있는 2022년 7월 예금보험재정 금융상권의 협약과 소정의 기준에 따라 예금자 보호 및 예금자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인증은 목도버스와 일정 기간 후 교육 적성 및 성과인증하는 것으로 적용됩니다. 예상에 따라 출판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출판권을 가집니다가 만족 실증증서 및 적성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원봉사 인증을 하는 경우 예금보험재정 1500-10000원(예금자 보호 및 예금자 보호)을 적용합니다.

NH농협은행